

<수능영어 50분컷 1등급 가능?>

영어 <수능영어-‘번역’말고 ‘이해’를 하세요. #1>

안녕하세요? 2020년부터 수능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사람입니다. **개인 과외로만 약 20명** 정도 진행해왔고 현재는 **타 플랫폼 인기 강사**로 활동 중입니다. 학생들 중에는 7등급에서 2등급으로 올라간 학생도 있고 3등급에서 고정1등급으로 올라간 학생도 있었습니다. 영어 과목은 절대평가이기도 하고 문제 유형이 번호대별로 정형화 되어있어 제대로 공부만 하면 다른 어느 과목보다 등급받기가 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잘못된 방법으로 그냥 열심히만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에 칼럼을 작성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과외를 하면서 **성적이 빨리 오른 학생들의 공통점을 바탕으로 수능 영어 글을 읽는 방법**에 대해 소개 해보려합니다. 저 역시도 학생 때 학교에서 치른 대부분의 모의고사 1등급을 받으면서(고2 교육청 모의고사 때 중간에 화장실 가서 딱 한 번 2등급 뺐던 걸로 기억합니다...) 자연스레 적용했던 방법이라 분명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는 분명히 필요한 스킬이고, 이미 고정1등급 분들은 자연스레 무의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스킬이 아닐까 싶습니다.

<수능영어 50분컷 1등급 가능? #1 서론>

‘단어만 알아도 영어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영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단어 암기는 정말 중요합니다. **단어 뜻만 알아도 문장 전체 뜻을 유추해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 영어로 유창하게 말하지 못하더라도 단어만 가지고 최소한의 의사소통이 가능한 것도 사실입니다(‘워터 워터’만 남발하여도 식당에선 물을 가져다주고, ‘왓 타임’ 두 단어만으로 시간을 물어봤던 일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정말 단어만 다 알면 영어 공부가 끝나는 것일까요? 학생 때 거의 모든 모의고사에서 높은 1등급을 받았었고 또 지난 3년간 약 20명의 학생들을 가르쳐보면서 저는 **‘적어도 수능 영어를 풀기 위해서 단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존재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1950년대 비평가들은 사실주의의 고상한 의식에 기초한 판단을 통해 대중문화의 산물들이 제공하는 ‘자연적인’ 즐거움을 거부함으로써 스스로를 대중들과 분리시켰다. 예를 들어, Douglas Sirk가 만든 영화의 사회 비평, 자기반영성, 그리고 특히 거리두기 효과를 옹호하는 대부분의 비평가들에게는, 연속극에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되는 ‘저속한’ 즐거움에 대한 거부감이 여전히 있다. 이런 거부감은 다시, ‘훌륭한’ 취향의 정당한 논리를 분명히 확보하기 위해 실제로는 비평가가 만들어낸 아무 생각 없고 즐거움만 추구하는 군중의 이미지로부터 그를 분리하는 기능을 한다. 그것은 또한 여성 취향과 주관성이라는 부정적인 개념을 강요한다. 대중문화의 비평가들은 항상 사람들의 타락의 깊이를 나타내기 위해 여성성의 경멸적 이미지를 상기시키는 것 같다. 그런 다음 취향 만들기의 과정이 작용하여, 군중의 인지된 무취향적 즐거움과는 상반되는 미학적 입장의 구축을 통해서, 심미주의자들과 대중 사이에 위계 상의 차이를 만들어냈다.”

고3 모의고사 지문의 한글 해석본입니다. 글을 읽고 나서 글을 보지 않는 상태로 내용의 핵심이 뭔지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긴 글을 읽고 '한 줄 요약 좀'이라고 할 때 요약하는 것처럼 제시된 글을 요약해보시길 바랍니다. 모든 단어를 다 안다고 가정한다면 이런 식으로 완벽히 해석(사실은 번역)이 가능한 상태일 텐데 한글로 된 말인데도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고 그래서 글을 읽고 나서 머릿속에 남아있는 내용도 거의 없을 것입니다. 요약도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이고요.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의 핵심은 모든 단어를 아는 것, 즉 완벽한 해석이 영어 독해 실력을 보장해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영어가 모국어인 외국인도 수능 영어를 풀면 틀린다는 말이 있을 정도니까요. 중요한 것은 글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글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해에 대해서는 다양한 정의가 있겠지만 저는 수능 영어에서 이해라는 것은 글을 읽고 나서 스스로 글에 대한 '한줄요약'이 가능한 상태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수능만점, 이성적이고 논리적 비평가들 VS 원시시대, 야만적 대중들”

두 대비되는 이미지를 머릿속으로 상상해보시길 바랍니다. 비평가들은 모두 고학력자에 매우 냉철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mbti T 99%정도로 상상하면 좋을 듯합니다. 반면에 대중들은 원시시대 사람이라 아주 야만적입니다. 이성적이지 못하며 태어나서 공부라는 걸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두 대상을 머릿속으로 상상해가면서 해석본을 다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1950년대 비평가들은 사실주의의 고상한 의식에 기초한 판단을 통해 대중문화의 산물들이 제공하는 ‘자연적인’ 즐거움을 거부함으로써 스스로를 대중들과 분리시켰다. 예를 들어, Douglas Sirk가 만든 영화의 사회 비평, 자기반영성, 그리고 특히 거리두기 효과를 옹호하는 대부분의 비평가들에게는, 연속극에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되는 ‘저속한’ 즐거움에 대한 거부감이 여전히 있다. 이런 거부는 다시, ‘훌륭한’ 취향의 정당한 논리를 분명히 확보하기 위해 실제로는 비평가가 만들어낸 아무 생각 없고 즐거움만 추구하는 군중의 이미지로부터 그를 분리하는 기능을 한다. 그것은 또한 여성 취향과 주관성이라는 부정적인 개념을 강요한다. 대중문화의 비평가들은 항상 사람들의 타락의 깊이를 나타내기 위해 여성성의 경멸적 이미지를 상기시키는 것 같다. 그런 다음 취향 만들기의 과정이 작용하여, 군중의 인지된 무취향적 즐거움과는 상반되는 미학적 입장의 구축을 통해서, 심미주의자들과 대중 사이에 위계 상의 차이를 만들어냈다.”

어떠신가요? 세부적인 내용까진 아니더라도 첫 문장(1950년대 비평가들은 사실주의의 고상한 의식에 기초한 판단을 통해 대중문화의 산물들이 제공하는 ‘자연적인’ 즐거움을 거부함으로써 스스로를 대중들과 분리시켰다.)을 통해 ‘고학력자인 비평가 애들이 일반 대중들을 싫어하고 애네들과는 분리되려 했구나. 엘리트인 비평가들은 지들 스스로 우리는 열등한 대중 너네랑은 달라ㅋㅋ라고 생각했겠구나.’ 정도의 느낌만 받으셨으면 성공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러한 느낌

을 받는 것이 수능 영어에서 글을 잘 이해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비평가가 일반 대중을 싫어한다.’는 느낌 정도만 받았더라면 ‘대중문화에 대한 비평가들의 부정적인 관점’이라는 1번선지를 정답으로 어렵지 않게 고를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핵심은 비평가가 어떻게 대중이 어떻게 하는 세부적인 텍스트 내용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실제로 모두 기억하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지문이 뭐라는 것인지 글에 대한 한줄요약을 내 머릿속에 남기는 것입니다. 저역시도 현장에서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비평가들이 대중을 엄청 싫어하는 것 같은데?’정도만 머릿속에 남아있었고 어렵지 않게 답을 고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첫 문장을 읽으면서 고지식하고 안경 쓴 느낌의 똑똑한 비평가를 떠올렸고 비평가들이 스스로를 대중들과 분리시켰다는 부분을 읽으며 대중들은 그다지 똑똑하지 않을 것 같다는 야만적인 이미지를 머릿속으로 형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번 이미지가 형성된 상태로 글을 읽어가다 보면 **세부적인 내용들(여성 취향과 주관성이라는 부정적인 개념을 강요, 여성성의 경멸적 이미지, 군중의 인지된 무취향적 즐거움 등등)**이 무엇인지 해석하고 이해해보려 애쓰지 않아도 야만적이라는 대중의 이미지에 일치하는 부분이구나 하고 글을 쉽게 이해해 나갈 수 있습니다.

문제를 맞히기 위해서는 글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글의 모든 부분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해석이 되는 일부분이라도 **해당 문장의 내용을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There is an apple.’이라는 문장을 보고 ‘있다/사과가’처럼 텍스트 자체를 머릿속에 넣는 것이 아니라 내 머릿속에 ‘빨갭고 맛있게 생긴 사과 하나’가 떠오르면 그만입니다. 긴 글을 읽고 나서 기억할 수 있는 정보는 ‘있다/사과가’라는 텍스트 자체가 아니라 ‘맛있어 보이는 빨간 사과’이미지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틀린 문제에 나온 단어, 구문을 외우며 이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는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없을 거고 그러면 문제도 다 맞힐 수 있겠지라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수험생들에게 글을 제대로 읽는 방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본인이 하시던 단어, 구문, 실전 모의고사 연습을 계속하면서 해당 칼럼을 통해 글 읽는 방법에 대해서도 추가로 생각해보시면 좋을듯합니다.

<수능영어 50분컷 1등급 가능?> #2 능동적 독해(강약조절)

저에게 수능영어는 항상 시간이 남는 과목이었습니다. 보통 빨리 푸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어마어마하게 특별한 방법이 있다거나, 글의 일부분만 읽고 문제를 푸는 편법 등등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수능만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두 번의 수능을 보면서 다 풀고 나서 한 번은 20분, 다른 한 번은 15분 정도가 남았었지만 저는 시험지에 인쇄된 글자들을 모두 읽었습니다. 발췌독하며 어느 부분은 읽고 어느 부분은 넘어가고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 많은 양의 글을 읽으면서도 빠른 시간 안에 문제를 다 풀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저는 ‘강약조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0문장이 있다면 10문장을 모두 같은 속도로 읽는 것이 아닌 3문장 정도는 천천히 읽되 나머지 7문장은 빠르게, 거의 훑는다는 느낌으로 보

고 넘겼습니다. 즉 모든 부분을 읽기는 하지만 그 중 정말 공들여 시간을 쓰면서 읽는 문장은 몇 안되고 나머지는 문장들은 모두 빠르게 지나간 것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중요한 문장은 시간을 들여 읽고, 중요하지 않은 문장은 대충대충 빠르게 넘어가면 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중요한 문장이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 문장일까요?

[#1 글의 구조 파악]

수능영어에 빈출되는 글의 구조(글의 전개방식)를 미리 알고 있다면 중요 문장을 골라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대표적인 구조 몇 가지를 소개하면서 각 구조에서 중요할 수밖에 없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두괄식

수능영어 대부분의 글은 두괄식으로 씁니다. 이 때 '두'는 '머리 두'자로 두괄식이란 머리에 해당하는 중요한 내용이 먼저 오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주장+근거, 주장+예시 형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 for example, for instance 같은 표현이 쓰였다면 그 앞문장이 필연적으로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지문에 주제는 하나인데 예시를 들어가면서까지 설명하는 것이니까요. 예시문장 앞부분을 중요하게 읽고 예시 부분은 빠르게 넘어가면 됩니다.

ex)과일은 맛있다. 예를 들어 사과는 달다. 수박은 새콤하다. 참외는 시원하다. 등등...

2)통념 반박

통념이란 것은 일반적인 개념,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어 기출 분석을 하다보면 일반인들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는 저렇게 생각해! 하는 식의 구조를 많이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은 ~~하다, 일반 사람들은 ~~하게 생각한다. 라는 내용이 나오면 그 이후에 이를 반박하는 부분이 실제 저자가 하고 싶은 중요한 내용에 해당한다고 생각하고 중요하게 읽으시면 됩니다.

ex)일반 사람들은 오르비가 별로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오르비가 짱이라고 생각한다.

3)실험글

말 그대로 실험을 하는 글이 자주 등장합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실험이 진행되었는지 실험에 대한 설명이 진행됩니다. 이 때 중요한 것은 '실험의 결과', 나아가 '실험의 해석'입니다 결국 모든 글에는 주제, 저자가 하고 싶은 말이 있기 마련인데 실험의 결과가 드러나고 이에 대한 해석을 하는 부분에서 실제 하고 싶은 말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ex)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민초파 반민초파 비중을 조사해봤다, 민초파 30% 반민초파 70%였다. 결과를 보면 반민초파가 더 많다, 이는 민초가 세상에서 없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4)문제와 해결

어떤 문제가 제시되었을 때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글에서 문제점, 문제 상황이 제시된다면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부분을 중요하게 집중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그 해결책을 통해 문제 상황에 대해 저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 저자의 주장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해결책이 중요합니다.

ex)키보드 사고가 많다. 키보드 규제를 강화하자.

5)문제점 강조

문제가 제시되었을 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그렇지 않은 글도 있습니다.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고 글이 끝나버리는 경우입니다. 그럴 때는 그냥 그 ‘문제 자체’가 중요합니다. 어떠한 해결책을 제시하지는 못하겠지만 제시된 문제가 진짜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ex)키보드 사고가 많다. 하루에 500명이 넘는 사람이 사고가 나고 있다.

6)설명문

설명문의 경우 다른 구조들과 달리 특별히 중요한 문장을 뽑아내기 애매한 측면이 많습니다. 말 그대로 어떤 소재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으로 저자기 자신의 주장을 강하게 드러내는 느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그냥 글에서 자주 나오는 단어, 반복되는 단어, 즉 글의 ‘소재’정도만 체크해놓으면 해당 소재가 중요하다는 것을 자연스레 느낄 수 있습니다.

ex)예전 신문사는 이랬다. 오늘날 신문사는 저렇다. 신문사에 많은 업무가 존재한다.

이렇게 몇 가지 빈출 구조들을 미리 알아놓는다면 글을 강약조절을 해가며 ‘능동적’으로 읽을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초반부에 어떤 실험 내용이 제시된다면 어떤 실험을 하는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 등등 그 실험 내용 자체를 모두 이해하려하며 힘줘서 읽기보다는 빠르게 빠르게 넘어가면서 실험의 결과, 해석이 나왔을 때 시간을 써서 해석 및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해당 부분이 저자가 실제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응되기 때문입니다.

글의 향후 전개를 ‘예측’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도 ‘능동적’독해에 큰 도움이 됩니다. 통념이 제시되었을 때 속으로 “애 이거 반박하겠네. 됐고 그래서 저자 넌 뭐라고 생각하는데?” 정도의 생각을 하면서 읽는다면 초반부에서 크게 힘을 빼지 않고 저자의 주장(통념에 대한 반박)이 제시될 때 더욱 집중해서 읽을 수가 있게 됩니다. 문제점이 제시되었을 때도 “그래서 해결책이 뭐라는거야?”정도의 생각을 한다면 글을 더욱 빠르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예측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문제점이 제시되길래 해결책이 나오길 기대했는데 그냥 문제점을 강조하고 끝내버릴 수도 있고, 내가 통념이라고 생각했던 내용이 사실 반박하기 위한 통념이 아니라 단순히 개념 정의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장 졸린 시간대에 그래도 머리를 조금이라도 더 굴려보며 스스로 글을 예측해봤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측이 맞으면 당연히 좋지만 틀리더라도 “어라 내 예상이 틀렸네.”하고 충격을 먹는 것 자체가 독해에 있어서는 큰 힘이 됩니다.

[#2 정보 쌓기]

어떻게 보면 앞선 글의 구조에서 설명했던 내용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스킬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보통 10문장짜리 지문이 5문장짜리 지문보다 까다롭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어든 영어든 지문이 길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 짜증이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a)과일은 맛있다. 사과는 달다. 포도는 새콤하다. 딸기는 달콤하다. 수박은 시원하다. 참외는 아삭아삭하다. 청포도는 식감이 좋다. 귤은 새콤달콤하다.

b)일본은 섬나라이다. 러시아는 전쟁 중이다. 사과는 비싸다. 귤은 마트에 있다.

어느 것이 읽고 나서 더 요약이 잘 되시나요? 내용이 더 많고 길긴 해도 당연히 a일 것입니다. a는 모두 과일이라는 테마 아래에서 비슷한 내용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과일 good~정도로 요약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b는 국가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 과일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 잘 감이 안 옵니다. 또 가격 얘기인지 판매처 얘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보 쌓기란 지문 속에서 유사한 정보들을 하나로 묶어주며 a에서처럼 글을 읽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지문에 영어 문장이 10문장 있다고 쳤을 때 10문장을 모두 새로운 정보로 받아들이면서 문장을 읽을 때마다 머릿속에 넣으려고 하다보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내용 이해(정리)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a를 읽을 때 한 것처럼 유사한 정보들을 하나로 묶어주다 보면 실제로 정리해야 할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a는 8문장이었지만 결국 기억에 남아 있어야 할 것은 '과일은 맛있다' 한 문장이었던 것처럼 말이죠. 그 이후 문장들을 읽을 때는 포도,딸기,수박,참외,청포도,귤-과일

달다,새콤하다,달콤하다,시원하다,아삭아삭하다,식감이좋다,새콤달콤하다-맛있다 정도로 생각하면서 '추가로 나오는 별 다른 내용은 없네~'하며 넘어가시면 됩니다.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1950s critics separated themselves from the masses by rejecting the 'natural' enjoyment afforded by products of mass culture through judgments based on a refined sense of realism. For example, in most critics championing Douglas Sirk's films' social critique, self-reflexivity, and, in particular, distancing effects, there is still a refusal of the 'vulgar' enjoyments suspected of soap operas. This refusal again functions to divorce the critic from an image of a mindless, pleasure-seeking crowd he or she has actually manufactured in order to definitively secure the righteous logic of 'good' taste. It also pushes negative notions of female taste and subjectivity. Critiques of mass culture seem always to bring to mind a disrespectful image of the feminine to represent the depths of the corruption of the people. The process of taste-making operated, then, to create hierarchical differences between the aesthete and the masses through the construction of aesthetic positions contrary to the perceived tasteless pleasures of the crowd.

* vulgar: 저속한, 서민의 ** aesthetic: 미학의, 심미적인

- ① critics' negative view on popular tastes and its effects
- ② criticism of cultural hierarchy in soap operas and films
- ③ side effects of popularized cultural products on crowds
- ④ resistance of the masses to cultural separations and its origins
- ⑤ critics' tendency to identify the refined tastes of the masses

오늘 다룬 내용을 적용하여 윗 문제를 한 번 풀어보겠습니다. 자세한 해설은 <수능영어 50분 컷 1등급 받는 비결> #1 서론 에서 작성해 두었으니 못보신 분들은 제가 쓴 글 #1편을 보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핵심만 간단히 설명해보겠습니다.

해당 지문은 한글로 완벽히 번역된 내용을 보더라도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for example'이라는 표지를 통해 우리는 결국 제일 중요한 문장은 for example 앞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critics separated themselves from the masses(비평가들이 그들을 대중들로부터 분리시켰다) rejecting the 'natural' enjoyment afforded by products of mass culture(대중문화가 주는 자연적 즐거움을 거절하면서)' 제가 #1편에서 작성했던 내용에 따르면 되게 세련된 느낌의 비평가vs야만적인 대중 정도의 이미지가 머릿속에서 형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비평가가 대중을 싫어했다.' 정도의 느낌만 잡으면 그 이후는 예시이기 때문에 빠르게 훑어나가듯 읽어 나가면 됩니다.

'vulgar' enjoyments('저속한' 즐거움), an image of a mindless, pleasure-seeking crowd(아무 생각 없고 즐거움만 추구하는 군중의 이미지), negative notions of female taste and subjectivity(여성 취향과 주관성이라는 부정적인 개념), disrespectful image of the feminine(여성성의 경멸적 이미지), tasteless pleasures of the crowd(군중의 인지된 무취향적 즐거움). 이후 문장들에 나오는 상당히 구체적인 소재들입니다, 여기서 '정보쌓기'만 잘 활용한다면 이러한 구체적 소재들에 대해 이것들이 각각 무엇인지 하나하나 고민해보며 시간을 쏟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세련된 비평가가 야만적인 대중을 싫어한다.'는 큰 정보를 하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for example 이라는 표지를 통해 뒷 문장의 내용들은 이 큰 정보에 구체적 예시일 뿐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해당 구체적 소재들은 모두 부정적이고 야만적인 느낌이 납니다. 결국

'저속한' 즐거움=아무 생각 없고 즐거움만 추구하는 군중의 이미지=여성 취향과 주관성이라는 부정적인 개념=여성성의 경멸적 이미지=군중의 인지된 무취향적 즐거움=야만적인 대중 형태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복잡한 내용이 많아보였지만 실상은 첫 문장을 제외하고는 새로운 정보가 없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해석도 어렵고, 해석(번역)을 하더라도 말이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많아 어려운 지문이었지만 정보 쌓기를 통해 예시문장에서 등장하는 구체적인 소재들을 모두 '야만적인 대중'이라는 큰 정보에 연결시키고, 글의 구조 파악을 통해 첫 문장이 가장 중요한 주제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다면 비교적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영어 지문만 보면 졸음이 쏟아지는 분들, 지문 읽고 문제 푸는 속도가 지나치게 오래걸리는 분들은 과연 내가 글을 잘 읽고 있는 것이 맞는지, 제시문 속 정보들을 제대로 처리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한 번 쯤 다시 점검해보시길 바랍니다.

<수능영어 50분컷 1등급 가능? #3 이미지형성&직관독해>

오늘 내용은 그간 #1 #2에서 다루었던 내용에 대해 구체적 소개를 하는 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2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지문을 텍스트 자체가 아닌, 머릿속으로 '이미지화' 시키면서 '능동적으로' 예측하며 읽자 정도가 되겠습니다. 한 분이 댓글에서 '정말 실전적'이라고 말씀해주신 만큼 전혀 과하지 않고 실제 수능 시험장 안에서 할 수 있는, 그리고 해야 할 생각들 위주로 정리해두었으니 아직 해당 칼럼들을 읽지 않으신 분들은 제가 쓴 이전 글에서 이전 내용들을 보고 오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전 내용이 '이미지화', '능동적으로 읽자'라는 행동요령들을 제시했다면, 오늘은 이들을 달성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논의해보겠습니다.

1)'메모'를 활용하자(특히 초반부)

어려운 글을 읽다보면 처음부터 무슨 내용인지 해석도 안되고 이해도 안되는 경험이 다들 한 번 쯤은 있으실 겁니다.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글을 읽어 내려 갑니다. 제한 시간 내에 빠르게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죠. 문제는 이렇게 글을 읽어버리면 **글을 읽고 머릿속에 남아있는 내용이 아예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 내용은 다 본 것 같은데 지문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고 그러다보니 답도 쉽게 골라지지 않습니다. 답을 모르겠으니 지문을 다시 읽고 다시 읽고 하다보면 시간은 어마무시하게 많이 지나있습니다. 반면에 초반에 해석이 잘 돼서 이해가 잘 되거나 내가 잘 아는 소재, 잘 아는 이야기가 나오면 후반부까지 글을 읽어 나가는데 큰 무리가 없고 문제가 깔끔하게 잘 풀렸다는 긍정적인 느낌이 듭니다.

글의 초반부가 이해가 잘 될 경우, 글을 읽는 것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첫문장에 나온 단어로 **글의 소재, 어떤 내용에 대한 글인지가 예측**이 가능하고 해당 카테고리 안에서 글을 읽어 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2에서 언급했다시피 초반부 내용을 토대로 이후 내용에 대한 예측이 가능해집니다.

ex)일반 사람들은 오르비가 별로라고 생각한다. > **저자는 오르비가 좋다고 생각하겠군**

(**통념반박 구조**)

미국의 모 대학에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다. > **실험 결과 및 해석이 중요하겠군**

(**실험글에서는 결과 및 해석이 중요**)

보통은 한 두 문장에 집착하지 않고 이해가 잘 안되거나 복잡한 문장이라면 넘겨버리는 것이 전체 내용 파악에 유리하겠지만, **첫 문장에서는 메모를 해서라도** 전체 내용이 뭐에 대한 글인지, 뭐라고 이야기를 할 지 예측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문장이 해석이 안된다면 그 문장에 나온 단어 하나라도 옮겨 써 놓고(메모하고) 글을 읽어

내려가보세요. 첫 문장이 완벽히 해석 및 이해가 안 되더라도 글을 눈으로만 읽지 않고 **손으로 뭔가를 한다는 행위** 자체가 글을 능동적으로 읽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나 점심 먹고 가장 졸린 시간대에 영어를 보게 되는데, 평온하게 눈으로만 읽게 되면 졸음이 쏟아지기 쉽습니다.

2)'나'를 관련시키자

a)남아프리카공화국 할아버지의 사랑이야기

b)내 절친의 사랑이야기

a)이집트, 리비아 침공 계획 발표

b)북한, 남한 침공 계획 발표

(당연히 가상입니다^^)

여러분들은 둘 중 어떤 것에 더 관심이 가시나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기와 관련 있는 이야기**에 더 큰 관심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술지문, 영어 지문은 나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재미있게 읽는다는 거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해석이 잘 되더라도 크게 관심이 안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솔직히 '박물관의 상업화', '하이퍼 모빌리티' 등등이 우리랑 무슨 상관입니까?

이렇다보니 지문을 읽을 때 몰입도 잘 안되고 해석이 되더라도 머릿속에 내용이 잘 안 들어오는 게 사실입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내가 관심이 갈 수 있도록 **지문에 '나'를 넣어**보면 됩니다.

1950s critics separated themselves from the masses by rejecting the 'natural' enjoyment afforded by products of mass culture through judgments based on a refined sense of realism. (1950년대 비평가들은 사실주의의 고상한 의식에 기초한 판단을 통해 대중문화의 산물들이 제공하는 '자연적인' 즐거움을 거부함으로써 스스로를 대중들과 분리시켰다.)

지난 편 칼럼에서 다뤘던 지문입니다. 핵심은 '비평가들이 대중들을 싫어하고 거부했다.' 정도인데 여기에 '나'를 투영해보는 것만으로 지문 내용을 더 잘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습니다. 저는 비평가보다는 일반 대중에 가까우니 **일반 대중=나** 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본인을 비평가라고 생각하고 나 말고 대중들은 멍청하지○○ 정도로 몰입해도 됩니다.) 비평가 놈들이 **나를 무시하는 느낌이 듭니다.** '지들은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정도의 생각을 하면서 글을 읽어나가면 좋습니다. 평소 잘난척이 심해 맘이 안드는 친구가 있었다면 그 친구 얼굴을 떠올리며 그 친구=비평가 나=대중으로 바꿔 읽어도 됩니다. 이렇게 몰입도가 높아졌을 때 내용을 다 읽고 나서 핵심 내용이 더 잘 기억이 나고 선지 고르기도 쉬워집니다.

3)'욕'을 활용하자

이 부분은 사실 케바케가 심할 수는 있는데요, 욕을 하게 되면 그냥 말을 하는 것보다 훨씬

자극적인 느낌이 납니다.

A는 고집이 강하다. A는 사회성이 떨어진다. A는 전과가 있다. A는 나를 괴롭힌다.

이러한 내용을 보고 A=고집, 사회성, 전과, 괴롭힘 이라고 모든 정보를 기억하기보다는 'A는 병신이다' 'A는 쓰레기새끼다' 정도로 정리하는 것이 머릿속에는 훨씬 더 잘 남습니다. A가 꼭 사람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수능 영어에서는 특히 문제점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이 나오는데 이 경우 어떤 개념에 하자가 있거나 문제가 생긴 경우 해당 개념=병신 이라고 생각하며 읽으면 이후 내용들을 받아들이는 데 훨씬 수월해집니다. 자연스레 처리할 정보도 줄어듭니다. 위 예시에서 고집, 사회성, 전과, 괴롭힘을 기억할 필요 없이 나올 때마다 '역시 병신맞네...' 정도로 빠르게 넘어가면 됩니다.

텍스트를 읽으며 최대한 상황을 상상해보고 이미지화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때 구체적으로 위에서 언급한 3가지 방법을 사용하면 훨씬 수월하게 이미지화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해당 내용들을 잘 적용시켜서 앞으로는 영어 시험 시간이 지루하지 않고 몰입이 되고 재미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